

제목 :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을 위한 제안

개요 : 횡단보도 신호등의 보이는 각도를 사람과 차량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실태 및 문제점 :

차량을 운전할 때 많은 횡단보도를 지나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은 사람위주로 도로 양쪽에서 서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특히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때문에 보행자도 놀라고 운전자도 놀라며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됩니다.

개선방안 :

1.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의 각도를 사람과 운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
2. 신호등을 90도 반달모양으로 만들어 보행자와 운전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 (교통법관련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름)
3. 하나의 기중에 보행자용과 차량용을 각각 설치 (기존 차량 신호등과 혼란의 여지가 있음)

개선효과 :

운전자가 횡단보도 상황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놀라거나 보행자가 운전자를 노려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어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(ITS)과 더불어 보다 안전한 군산시 교통문화를 선도할 수 있음.